

Sector Comment

K-POP Rise & Release

2025.07.11

장지혜 엔터·미디어·음식료 02-709-2336 / jihye.j@ds-sec.co.kr

김대성 연구원 02-709-2886 / rlarla6019@ds-sec.co.kr

K-pop R&R 004. 캣츠아이 음원 호조와 북미 투어 발표

K-pop R&R은 K-pop 아티스트의 활동 성과 및 업종 내 주요 이슈를 분석하는 자료입니다. 주목할 만한 아티스트의 성과(Rise)와 음반/투어 일정 공개 소식(Release)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였습니다.

■ 캣츠아이(KATSEYE) EP 2집 <BEAUTIFUL CHAOS> 인기 속 첫 단독 콘서트 개최 발표

- KATSEYE는 HYBE UMG 소속의 글로벌 오디션 'The Debut: Dream Academy'를 통해 결성된 6인조 걸그룹
- 24년 8월 EP 1집 <SIS (Soft Is Strong)>로 데뷔 후 25년 6월 EP 2집 <BEAUTIFUL CHAOS> 발매
- 최근 음반/음원 성적이 고무적인데 EP 2집은 빌보드 200 차트(7/12주간) 4위 기록
- 선공개 싱글 'Gabriela'는 빌보드 핫 100 차트에서 94위(7/5주간)→87위(7/12주간), 'Gnarly' 98위→90위로 상승
- KATSEYE의 스포티파이 월간청취자 수는 7/10기준 2,182만명 기록(vs. BTS 2,780만명, BLACKPINK 1,671만명)
- 이러한 인기로 힘입어 데뷔 1년만에 25년 11-12월 단독 콘서트 <The BEAUTIFUL CHAOS> 개최 발표
- 콘서트 규모는 북미 13개 도시 회당 5천~7천석 규모로 6.5만명~9만명 모객 기대됨

■ 해외 현지 아이돌 투자 성과 나타나기 시작. K-pop 제작 시스템의 확장과 시장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

- 하이브, JYP 등 주요 엔터 기획사는 K-pop 제작 시스템을 해외 시장에 도입한 현지 IP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
- 20-22년 일본, 23-24년 미국, 25-26년 남미, 중국, 인도 등 현지 IP 개발 지역도 확대되는 중
- 초기 단계지만 KATSEYE의 음원 성과 및 공연 개최는 예상 대비 빠른 현지 IP의 수익화 시점 도달 가능성 증명
- 이러한 해외 현지 IP 성과는 엔터 기획사의 경쟁력 증명 및 K-pop 장르 외 추가 성장성 확보 측면에서도 긍정적

그림1 KATSEYE의 첫 단독 콘서트 개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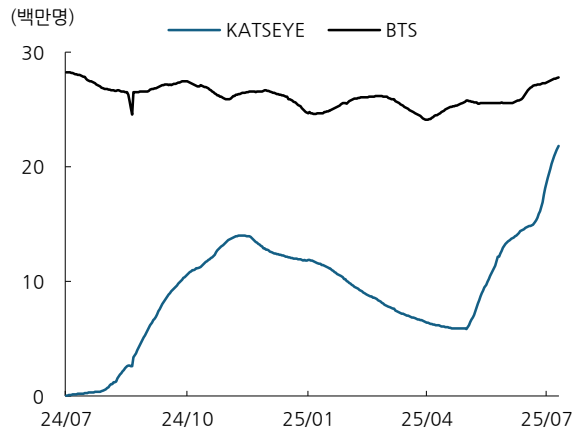
자료: 하이브,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2 7/12 주간 빌보드 200 차트 순위

Billboard 200™					WEEK OF JULY 12, 2025			
THIS WEEK	LAST WEEK	PEAK POS.	WEEKS ON CHART					
1				I'm The Problem Morgan Wallen	+	1	1	7
2				Virgin Lorde	+	★	-	2
3				KPop Demon Hunters Soundtrack	+	★	8	3
4				Beautiful Chaos (EP) KATSEYE	+	★	-	4
5				Tropicoquetta Karol G	+		3	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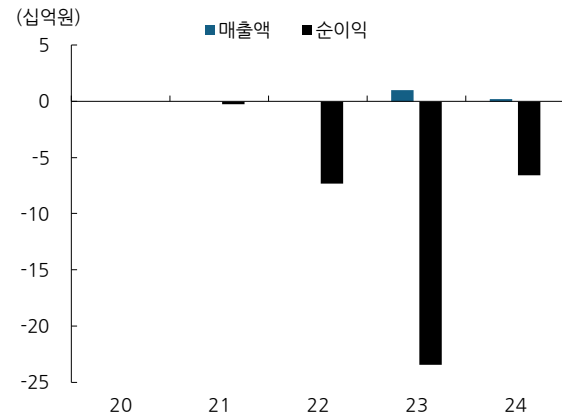
자료: Billboard,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3 스포티파이 월간 청취자수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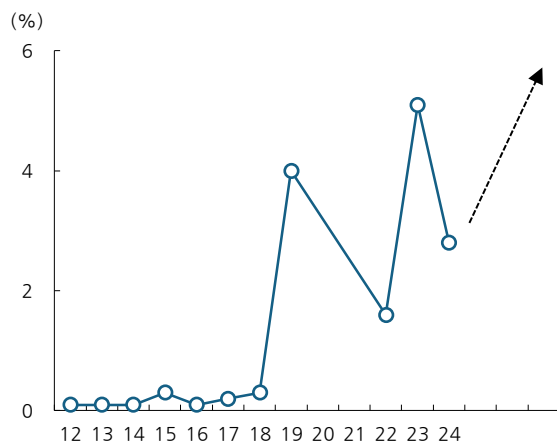
자료: Spotify,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4 HYBE UMG의 실적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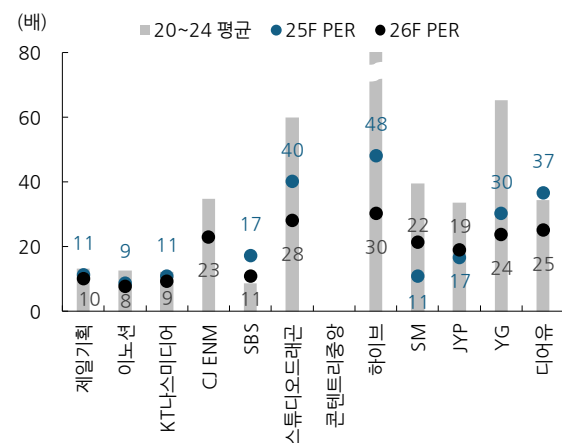
자료: 하이브,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5 글로벌 공연 시장 내 K-pop 점유율



자료: Billboard,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추정

그림6 미디어-엔터 PER 밸류에이션 비교



자료: FnGuide,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
-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